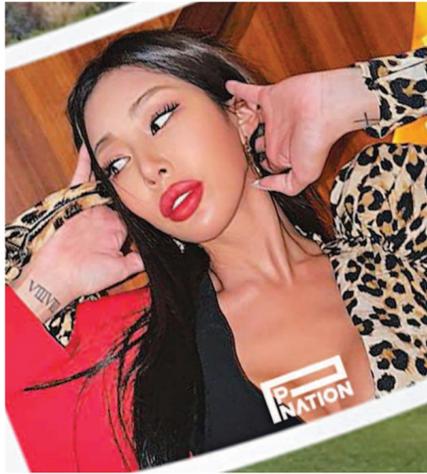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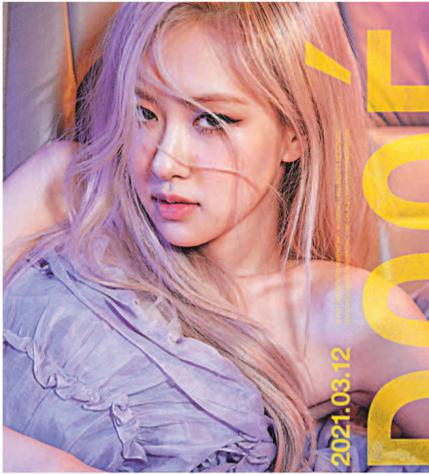




가수 아이유·로제·제시(왼쪽부터)가 저마다 개성을 담은 음반을 발표해 여성 솔로가수 경쟁을 펼친다.



사진제공 | EDA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피디에이션

아이유 vs 로제 vs 제시... “음원퀸은 나야”

블랙핑크 로제, 12일 솔로 데뷔
제시도 17일 새 앨범...8개월만
아이유, 25일 정규 라인업 발표

‘아이유 vs 로제 vs 제시.’

여성 솔로가수들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현아, 선미, 정하가 잇따라 컴백해 흥행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이유와 제시,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경쟁의 절정을 이룬다. 저마다 독특한 음색과 개성 강한 음악으로 ‘음원 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며 국내외에서 두터운 팬덤을 쌓아온 만큼 이들이 선보이는 새 앨범에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린다.

이들 가운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인공은

12일 솔로로 데뷔하는 로제다. 블랙핑크로 활동하며 세계적 팬덤을 거느린 그녀는 이날 오후 2시(미 동부시간 12일 오전 0시) 첫 번째 솔로 앨범 ‘R’을 발표한다. 앨범 제목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로제의 영문 이름 첫 글자에서 따왔다.

로제는 새 앨범을 통해 뚜렷한 색깔을 드러낼 기세다. 그룹의 메인 보컬을 담당하며 독특한 음색을 자랑해온 만큼 솔로 가수로서도 이 같은 매력을 부각해 자신만의 영역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각오다.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과 함께 1월26일 블랙핑크의 온라인 콘서트에서 선보인 서브 타이틀곡 ‘곤’(GONE) 등도 담는다. 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앨범과 뮤직비디오는 역대급 제작비를 투

입한 대작”이라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반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들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블랙핑크 멤버 가운데 2018년 ‘솔로’(SOLO)를 발표한 제니에 이어 로제가 두 번째 솔로 출격하며 내놓을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다. 블랙핑크가 지난해 선보인 첫 정규 앨범으로 세계 팝음악 양대 차트인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를 휩쓰는 성과를 낸 뒤 새로운 음악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어디로 뭉치 모르는 매력”으로 방송가를 주무르고 있는 제시도 8개월 만에 신곡을 내놓는다. 제시는 17일 오후 6시 선보일 새 앨범을 통해 전매특허인 ‘센스인사’ 콘셉트를 강조한다. 폭발적인 성장에 어울리는 ‘섹시 카리스마’의 모습도 드

러낸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눈누나’로 챌린지 열풍과 함께 데뷔 이후 최고 음원 성적을 기록한 만큼 이번 신곡으로 독보적인 제시 여가수의 자리에 쐬기를 박을 전망이다.

국내 최고 음원 강자로 꼽히는 아이유는 이들의 최대 적수다. 아이유는 25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 ‘라이락’(LILAC)을 발표한다. 앞서 1월27일 5집 수록곡 ‘셀러브리티’를 선 공개해 두 달 가까이 음원차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이유는 새 앨범에서도 직접 곡을 쓰고 프로듀서까지 맡았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목소리와 가치관을 가사로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의 그가 이번에도 자신만의 이야기로 팬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방탄소년단

유퀴즈 & 특집 토크쇼 방탄의 방송가 나들이

tvN·KBS2 특집 편성...다른 방송사도 러브콜

‘월드클래스’ 방탄소년단이 오랜만에 시청자 앞에 선다. 24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29일 KBS 2TV 토크쇼 ‘렛츠 BTS’ 등에 출연키로 해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적 입지를 굳힌 뒤 해외무대에 주로 나서왔던 이들이 완전체로 국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2017년 JTBC ‘아는 형님’ 이후 4년 만이다. 각 방송사의 ‘BTS 모시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조만간 녹화에 참여하는 두 프로그램은 저마다 특집 기획을 준비 중이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여러 명의 출연자를 차례로 만나는 기존 포맷 대신 방탄소년단이 단독으로 출연해 100여 분을 채우는 형식으로 녹화할 예정이다. 오로지 방탄소년단을 위해 편성된 특집 토크쇼인 ‘렛츠 BTS’에서는 진행자로 나서는 방송인 신동엽·장도연과 함께 멤버들이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눈다.

이를 통해 15일(한국시간)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관련 내용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올라 수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각 방송사의 특집 편성은 그야말로 ‘과격 대우’로 비친다. 각 제작진은 관련 준비 사항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다른 방송사들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평소 애시청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섭외 ‘러브콜’을 보내며 다각도로 출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성사됐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대중과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멤버들은 작년 오프라인 월드투어가 취소되는 등 팬들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여러 차례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지수 “평생 씻지 못할 과거 반성”...학폭 인정

드라마 ‘달이 뜨는 강’ 하차 결정
제작사, 대체 배우·재촬영 고심

연기자 지수(김지수·28)가 최근 제기된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주연 중인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도 하차하기로 했다.

지수는 4일 SNS로 자필 사과문을 내고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

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연기자로 활동하는 내 모습을 보며 긴 시간 고통 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 못할 나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또 “저 개인의 커다란 잘못으로 방송사와 제작진, 배우들, 드라마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던 스태프 관계자 분들께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괴롭고 죄스럽다. 저로 인해 드라마에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



지수

히 바란다”고 사과했다. ‘달이 뜨는 강’ 제작진은 최근 지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로부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자 상황 파악에 주력해왔다. 전날에 이어 4일에도 드라마 촬영을 모두 취소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수가 직접 가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드라마에서도 하차하지만,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작진은 단 2회 분량의 촬영을 남긴 상황에서 어디에서부터 재촬영을 할지, 어떤 배우로 대체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학폭 의혹이 제기된 걸그룹(여자)아이들 멤버 수진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황을 조사 중”이라면서 “사실 관계 파악 때까지 수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여자)아이들은 당분간 5인 체제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우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성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할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텔레기부 품앗이계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성민 목사 010-4277-0691
● 법무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주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정국장 010-7653-5373 / 이주지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황영성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상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수원인 010-4741-7008
● 울산 지영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영현 010-3742-5998 / 전남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강원 이철범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전남 김해덕 010-6258-3510 / 우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준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인천 허찬희 010-4707-2659
● 함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인희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연내 010-9005-3616
● 경기 남부 황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9383 ● 평강 고영필 010-5463-6952 ● 중국 송능숙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해외이윤이나니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lubuntu 1644-6733